

종합·해설

한나라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현 시장 선출

6·2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한나라당 후보로 오세훈 현 시장이 3일 선출됐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나경원 김충환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꺾고 당 후보로 확정돼 최초의 민선 서울시장 재선을 노리게 됐다.

오 후보는 서울시 의원 및 일반당원, 일반국민 등 3761명이 참여한 현장투표에서 2529표(67.2%)로 나경원(970표, 25.8%), 김충환(262표, 7%) 후보를 압도한 채 서울시민 각 2000명을 상대로 한 3개기권 여론조사에서도 687표(73.01%)를 얻어 나경원(200표, 21.3%), 김충환(54표, 5.69%) 후보를 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오 시장과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후보인 한 전 총리의 양강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6일 당 후보를 확정한다.

연습뉴스

“여론 50%+공론 50%로”

김진표·유시민 단일화 합의

민주당 김진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김진표·유시민 두 후보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진표 경기도지사를 심판하라는 도민의 열망을 받아들여 후보 단일화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 측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밤샘 협상을 통해 ‘여론조사 50%+공론조사 50%’ 방식으로 오는 12일 단일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공론조사는 유 후보 측이 제안한 것으로, TV토론 등을 통해 선거인단에 후보 정보를 제공한 뒤에 지지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사전 선거운동을 제외한 제한적 국민참여경선을 요구했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30만명, 참여당 8000명의 당원 등 지지자 가운데 추출한 1만5000명으로 구성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구청장 선거 민주당-참여당 대결?

광산·동구 이어 서구도 참여당 후보 확정

민주당 텃밭 후보와 한판 승부 관심 고조

국민참여당이 광주지역 구청장 후보를 잇달아 내세우고 있어 광주지역 자치단체장 선거가 ‘민주당 대 참여당’ 구도로 전개될 조짐이다. 광산구의 송병태 후보 동구의 임택 후보에 이어 3일에는 서구에 서대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이 참여당 후보로 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회견을 한 서 전 비서관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남 대법원 상임감사를 거친 ‘진노(親盧)’인사로, 참여당의 시민공모 절차를 통해 입당했다.

이로써 참여당은 광주 5개 구청장 중 광산구와 동구 등 3개 구청장 후보를 사실상 확정했다.

참여당은 광산구청장 후보인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은 관선과 민선 구청장을 3차례 지내 고경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고, 동구청장 후보로 나설 임택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30%가량 득표한 바 있다.

서구의 경우 유력한 민주당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주연 청장이 관선 선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민주당에 대한 서구 주민들의 민심이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당은 조만간 북구청장과 남구청장 후보도 공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과 한판 대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참여당 시장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있지만, 확정되지 않아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후보자 등록 신청일(13일) 이전까지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 도의원 비례대표 순위 투표

3일 화순 하나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을 위해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상무위원회에 김효석 도당 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등이 참석해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투표에선 ▲1번 한순주(여) 진도군의원 ▲2번 유근기 전 도의원 ▲3번 김소영(여) 전남도당 여성조직국장 ▲4번 조재근 전남도당 지방자치국장 ▲5번 이혜자(여) 전남도당 여성기획국장 ▲6번 이길주 전남도당 홍보특별위원 등이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참여당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 강제지역인 광주에서 민주당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꺾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북구청장 재선을 노리는 송광운 청장의 경우 탄탄한 지지도를 형성하고 있고, 남구청장 선거는 무소속 함일봉 청장과 민주당 최영호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구청장도 3선을 노리는 유태명 청장의 지지세를 과연 ‘참여당 브랜드’로 돌

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구나 민주당당도 강기수 서구청장 후보 외에 4개 구청장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어서 3당 구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당 관계자는 “정찬용·이병완 예비후보 간의 광주시장 단일화와 5개 구청장과 시의원 후보를 모두 공천하면 민주당과 참여당 간의 대결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정용화 “24시간 영육아 시설 확대”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일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부모들이 가정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국공립 24시간 영·육아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사회적 재로’ 광주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현행 8개소인 광주지역 국공립 영·육아시설을 각 자치구별 2곳, 산단 별 1곳씩 등 총 26개소로 늘리고, 방과 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4년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섭 “등록금 걱정없는 광주 만들것”

민주노동당 장원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일 “값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광주지역 대학생이 29.6%에 달하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상한선은 물론 인상을 넘지 않도록 고시하는 등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소득에 따라 등록금 차등 부과제를 실시하고 광주시 소재 대학 재학생을 포함해 광주시에 주소지가 있는 재학생으로 학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차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태명 청장, 3선 출마 공식 선언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은 3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4년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광주와 동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해 동구를 3대 권역으로 나눠 특화 개발하는 한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힘써 인구 15만의 친환경 녹색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충석, 여주시장 무소속 출마

김충석(69·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 전 여주시장은 3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여수 경관조영 사업을 비롯,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수수출공사의 부실한 준비상황 등을 비판한 뒤 “당선 되면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장고 들어간 이석형 무소속 출마하나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에 도전했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경선 무산 이후 특별한 행보를 삼간채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군수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당무 회의에서 전남지사후보로 박준영 현 지사가 최종 인준돼 경선이 무산된데 대해 ‘승복’ 또는 ‘비판’ 등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을 무산시키자 강하게 반발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전 군수 측 관계자는 “이 전 군수가 당무회 의의 이전부터 주변 사

람들을 만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 의견 을 듣고 있다”며 “백지 상태에서 승복 내지는 무소속 출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3일 현재 이 전 군수 측 내부에서는 무소속 출마 주장과 당의 지방선거를 도운 뒤 2년 후 함평·영광·장성에서 총선을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의 후보 최종 인준에 승복하고 2년 후를 기약하는 측은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경우 2년 후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이미지를 도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이 전 군수의 장기



경선불복이 아니며 따라서 5년 동안 공천을 받지 못하는 당헌·규예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천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도민을 무시하고 원칙없는 행보를 하면

적인 정치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지적이다.

반면, 무소속 출마를 주장하는 측은 이번 경우 경선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문제에 조치가 일질 부분 와해된 상태여서 출마 선언 후 이어져온 상승세가 꺾여있다는 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 무소속 바람이 어느 선거보다 심하게 불 것이란 예상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 남구·광산구, 구례·순천·광양·여수·고흥·신안·강진·해남·장성·함평·화순·나주 등에 막강한 무소속 후보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에서 이들이 연대할 경우 민주당 후보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전남 동부권의 경우 3번이나 후보조차 못내면서 반민주당 바람이 어느 지역보다 거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사 이번엔 실패하더라도 1년 후 복당, 2년 후 총선 도전이 가능해 도지사 도전이 오히려 2년 후의 승산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조치가 일질 부분 와해된 상태여서 출마 선언 후 이어져온 상승세가 꺾여있다는 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www.jwad.co.kr
주정원애드 062)382-2285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011-620-3960 062-381-6000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교육일시 및 장소
2010.05.27.(목) ~ 2010.06.01.(화) / (총 60시간 강의)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지역지 변도시 공인회계사, 경영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 행정사무관, 자선문화재단, 전문인력
학·석사 학위지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건설 등의 근무경력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방자치,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 중 기획·인사, 경영, 인사, 개발, 건설 관련 분야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원 장 이명규 교 수 062-670-2421
부원장 강 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 김 병철 062-233-3119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 필요한데 근저당설정이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당사 안광호 팀장
010-4041-1121